

## ❖ 디지털 시대, 도서관 장서의 변화와 과제

급변하는 도서관 내외의 정보 환경 변화에 따라 미래 도서관은 지식 수집과 정보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가 도서관 무용론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할 것이다. 기존의 도서관 장서가 전자책(e-book), 전자저널 등 디지털 매체로 대체되고 있으며,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에 의한 자료의 접근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래 도서관에서 장서의 변화를 조망하고 그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 장서 변화의 환경요인

미래 도서관 장서 변화의 환경 요인으로 먼저 출판 시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미국도서관협회(ALA)가 발표한 한 조사에서 미국공공도서관 중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비중이 2007년과 비교해 30% 가량 증가한 67.2%에 달한 것으로 확인 되는 등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도서관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아마존(Amazon)과 반스앤노블(Barnes & Noble)과 같은 출판계의 대형사업자 간의 미래 전자책 시장 선점을 위한 격전지로 부상하면서 그 확산 속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 아마존의 경우 전자책 대여 서비스 확대를 가속화하며 “유료 디지털도서관”으로의 변모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중심축을 옮겨가고 있는 출판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일부 대형 출판사(Random House)가 자사 전자책의 도서관 공급가를 인상한다고 밝혀 전자책 도서관 대출 모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내의 경우 금년도 상반기에 예스24의 전자책 매출이 154%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전자책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가 전자책 확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픈엑세스(Open Access) 확산도 도서관 장서에 큰 변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도서관에서 상업적 출판사와 거래에 있어 거부감이 일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구독 모델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픈엑세스가 확산되고 있다. 2012년 학술저널구독대행사의 한 조사에서 응답한 395개 도서관 중 67%의 도서관이 예산 문제로 오픈엑세스 저널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엑세스나 기관 리포지토리(Institution Repository)를 통해 도서관 장서를 확대해 가는 도서

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수집 자료의 유형도 학위 논문, 연구논문, 강의자료, 데이터셋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와 모바일을 통한 정보 접근 확대는 도서관 장서의 범위를 기존의 콘텐츠(contents)에서 컨텍스트(Context)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주문형 인쇄(Print on Demand), 페이퍼뷰(Pay per View)도 기존의 도서관 장서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5년 내 저널의 대부분이 전자저널로 전환할 것이며, 단행본도 예산의 절반이 전자책 구입에 소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1)</sup> 도서관에서 아카이브가 확보된 경우, 인쇄저널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고 전자저널로만 이용하는 도서관 클라우드가 실현될 전망이다.

국제적인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를 통한 자료의 접근 확대도 장서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다. 구굴은 2004년 12월부터 뉴욕공공도서관, 하버드대학교, 미시간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대학도서관과 손잡고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2천만권의 장서들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개방 및 공유를 모토로 하는 공익적 차원의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 OCA(Open Contents Alliance)가 결성되어 진행되고 있다. 2007년 9월에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 19개 대학 및 연구기관 도서관이 OCA에 참여하여 저작권이 만료된 총 3,400만권의 장서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주요 도서관들의 OCA로의 참여는 공적 영역에 속한다고 믿었던 각종 도서관 서비스가 점차 특정 사업자 영역으로 편입되어가는 현상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우려를 담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외에도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는 유럽 내 주요 도서관의 서적과 유럽연합 관련 50년간의 문서를 디지털

1) "Library Budget Predictions for 2011", PCG

화하는 유로피아나(Europeana) 프로젝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세계 유수의 온라인 포털 기업과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 구축 프로젝트는 앞으로 우리 도서관 장서에 큰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미래의 장서개발 업무


장서가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면서 인쇄자료의 축소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미래 우리 도서관은 인쇄자료의 이용이 감소되고 전자자료로 대체될 것이다. 기존의 오래된 매체들은 디지털 아카이빙 될 것이고, 저작권 만료 자료는 디지털화 되어 폐기될 것이다. 또한 정보의 생산 배포는 맞춤형 출판(Print on Demand)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도서관의 수서업무에 있어서도 전자책에 대한 이용자 주도 수서(PDA, Patron driven e-book acquisition) 방법이 점차 일반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이 좀 더 완성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전자책 대여를 위한 라이선스 옵션과 모델이 좀 더 지원 가능한 방법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자료의 증대는 전자자료 라이선스 관리업무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요구하며 기관 내에서 생산되는 학술데이터의 망라적 수집과 저널의 가격 상승에 따른 연구 성과물의 접근성 장애 제거를 위해 오픈액세스가 가능한 기관 리포지토리 구축을 필요로 한다. 수집되는 정보자원의 형태도 게임, 오디오북, 사진, 동영상, 웹강좌, 발표자료, 팟캐스팅 등 다양해질 것이고 수집된 정보자원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이다.

정보네트워크킹으로 서로 연결되는 ‘도서관 클라우드 컬렉션’이 도입되어 협력 도서관간 중복인쇄본을 공동 보관소로 이관하여 공간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공동 디지털 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이용하게 될 것이다.

### 맺는말

도서관은 이제 물리적 공간과 사람, 자료뿐 아니라 디지털 자료와 서비스 및 도구도 제공하는 디지털 요소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 같은 환경은 자료의 수집과 보관,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는 도서관 본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가 도서관의 무용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자료 보존과 수집 및 분류라는 도서관 본연의 임무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것이다. 이제 도서관들은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화를 통해 지식 보존과 전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계속 수행함과 동시에 복합 디지털 서비스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스트라베이스. 2012. 미래 도서관, 디지털화 통해 지식 수집과 정보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 더욱 강화 중  
[http://www.strabase.com/report\\_type/view.php?num=12759](http://www.strabase.com/report_type/view.php?num=12759)
- 포스코학술정보팀. 2012. 도서관 미래 전략. 『KSLA 임원 춘계 워크숍』, 2012년 5월 11일.
- 이지호, 박옥화. 2008. 전문도서관의 블루션 창출을 위한 사서의 역할 및 업무역역 다변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189-205
- 김경철. 2009.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도서관의 서비스 개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0(1): 93-113

글 | 정진규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차장  
 한국전문도서관협회 이사  
 한국사서교육원 강사  
 chj@kocca.kr

